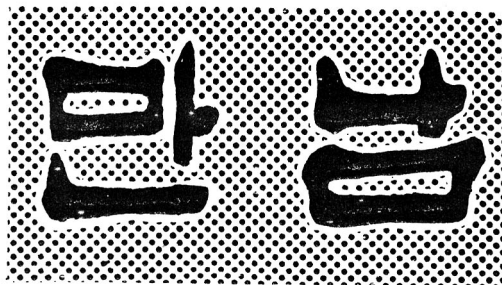


◆ 성 구 ◆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발행인	박준
편집인	김창
인쇄인	김병
주간	임영
	수

1978. 1. 21.

〈제 5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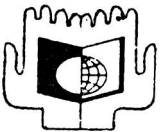
영락교회 평신도부 발행



초대교회같이 생동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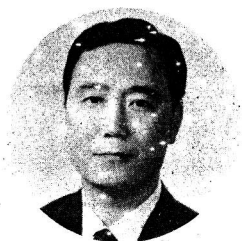
이달의 말씀



생동하는 교회

○..... 희망에 찬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심 같이 범.....○
○.....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당회장 박 조 준



지난 1년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각 방면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주일 새로 증축한 예배당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격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1978년 이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러하려니와 교회적으로도 더욱 그러합니다. 언제인들 그러하지 아니하리오마는 이 한 해 동안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로 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할 때 사회에는 건잡을 수 없는 혼란이 존재할 것이 내다보입니다.

저는 여러달 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금년에 우리 성락교회가 목표하고 힘써야 할 일은 "생동하는 교회, 살아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일찌기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생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동하는 초대교회의 열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활기찬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칠 것도 없거니와 배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느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초대교회는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하였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경외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우리의 행동이나 몸가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당한 몸가짐 이어야 합니다.

4.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3절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하였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동하는 교회는 사람으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사업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5. 초대교회는 나눠가지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4-45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곤"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빈부를 가

리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가지며 나눠먹었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이 힘을 써서 작년으로 100억불 수출목표를 달성했고 금년에는 국민의 G. N. P가 1,050\$이 되게 된다니 그동안의 경제 성장은 선진국가들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부한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걱정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더구나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현상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준다"면 공산주의자를 따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산 증거입니다.

6.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본문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하였습니다. 생동하는 교회는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고 주장이 있다한들 모이지 않으면 무슨 힘을 쓸 수 있습니까?

7. 초대교회는 참 사귀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친구들입니다. 참 교회는 서로가 친구가 되며 형제적으로 뭉친 사귀어 있는 장소입니다.

8.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였습니다.

본문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하였습니다. 생동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로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2.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생동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지런히 공부한 것만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교도들의 미움과 핍박을 잘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 학원, 직장, 군대 선교에 박차를 가하자 —

직장인 성탄 축하예배

성탄 축하 금요예배가 지난 12월 16일 베다니 휴게실에서 있었다.

200여명의 직장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에서는 원로 목사이신, 환경직 목사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여전도회 회원들이 마련한 다과를 나누며 지난 한 해를 서로 얘기하고 성탄을 축하하였다.

이날 특별히 성탄 축하 음악은 아멘 중창단이 맡아 주었다.



□ 성탄축하 금요예배

여전도회 총회

지난 12월 11일 여전도회 총회가 봉사관 5층에서 주선애 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권용평 목사의 선교적 사명을 고취시키는 말씀이 있은 후 3500여 만원의 총결산 보고가 있었고 78년도에는, 373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키었다. 이날 재선된 78년도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 조의숙 권사, 부회장 : 한 경실 권사, 한석수 권사, 총무 : 김세정 권사 서기 : 백금옥 권사, 부서기 : 임인실 집사, 박인덕 집사, 회계 : 정혜숙 권사, 부회계 : 손덕화 권사, 정경희 권사, 김옥희 권사, 이동순 권사, 내지선교부장 : 강순애 권사, 차장 : 오경자 권사, 김덕윤 집사, 외지선교부장 : 김기혁 권사, 차장 : 김영도 권사, 유영희 권사, 교육부장 : 이동선 권사, 차장 : 김순희 권사, 전근순 집사, 사회부장 : 원정순 권사, 차장 : 김정희 권사, 이은애 권사, 봉사부장 : 장순전 권사, 차장 : 김금옥

권사, 홍인숙 집사, 사교부장 : 조귀덕 권사, 차장 : 장영애 권사, 최인자 집사, 전례부장 : 김영실 집사, 차장 : 한금희 집사, 임은진 집사, 음악부장 : 조상희 권사, 차장 : 김천희 집사, 차정자 집사. (협동총무)

내지선교부 : 정혜옥 권사, 외지선교부 : 박봉희 권사, 교육부 : 이부덕 권사, 사회부 : 최기빈 권사, 봉사부 : 김창숙 권사, 사교부 : 김선옥 권사, 전례부 : 김인선 권사, 음악부 : 한석순 권사

여전도회는 지난 한해 동안에 3,700여만원의 결산을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70% 이상을 개척교회에 투사한 것이다.

한해 동안 도운 교회는 17교회이며 그 중에서 9교회를 자립시켰다. 그 외에도 군전도 불우여성전도 및 병원전도를 하고 있다. 특별히 신년도에는 외지선교가 파송을 위하여 5,000,000원의 예산을 세웠다. 생동하는 교회로 명실공히 알차게 일하는 전도회이다.

대학부 군인 선교

지난 12월 27일 대학부에서는 50여명의 벗님들이 강원도 사창리에 있는 제 2376부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수교하는 공병대 장병들을 위로하였다.

대학부에서는 준비해 가지고 간 위문품으로 AMP를 그곳 사단 사령부에 기증하고, 또 군인교회에 유년부 학생들을 위한 도서 120여권과 자전거를 기증하였다. 한편 준비해 간 떡국을 함께 끓여서 점심을 먹은 후 대학부 부장 장로님으로 계신 박인재 장로님의 기도하고 지도 목사님으로 계신 임영수 목사님의 메시지 전달로 예배를 드린 후 같은 젊은이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장병들과 즐거운 친교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십자가의 용사로서도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고 짧아진 문틈으로는 찬 바람이 불어 들어와 쌀쌀했지만 대학부 벗님들의 정성어린 마음은 그 모든 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훈훈하게 위로할 수 있었다.

개척교회 자립

지난 12월 18일 연예인교회(하용조 목사)가 자립하였다. 이날 말씀은 박조준 목사님께서 해 주셨다.

지난 12월 26일 여전도회에서 도와오던 성광교회(이상인 목사)가 자립하였다. 이날 장창인 장로님 여러분이 참석하였다.

또 12월 27일에는 대광교회(의 신삼 목사)가 자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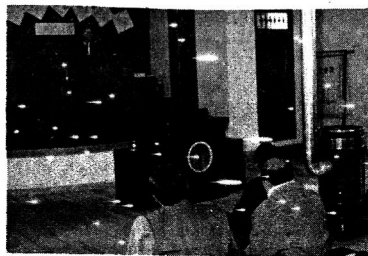
지난 한 해동안 영락교회 전도부를 통해 개척된 곳은 13개처이며 자립한 교회는 12개이다.

신 개척교회;

영광, 덕일, 보절, 성왕, 영지, 일심, 목양, 낙원, 초평, 한, 경주 남부, 온양신촌, 통합.

자립교회;

동두천, 덕일, 보절, 광혜원, 남면, 공릉제일, 망원제일, 연예인, 성광, 대광, 서부아파트, 수원서문밖.



□ 자립한 성광교회

합동 세례식 거행

지난 12월 21일 육군 제 3111 부대에서는 합동 세례식이 있었다. 말씀에는 권용평 목사께서 하셨고 장창인 전도부장의 7분이 참석하였다. 이날 세례를 받은 자는 200명이었다.

또한 12월 23일에는 전도부에서 성탄 축하 위문 및 세례식을 육군 제 9사단에서 가졌다. 권용평 목사의 말씀과 장창인 전도부장등 여러분이 참석하였다.

이날 전도부에서는 에어포트(보은병) 20개, 강대용 카펫(100,000원)를 기념으로 전달하였다.

불우한 아동들의 보금자리, 영락보린원



□ 씩씩하게 자라는 보린원 아동들

1. 설립 목적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약 1:27의 성경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무의무탁한 아동들을 아동복지법 제 11조의 의의에 수용 양육하며 기독교 정신과 성경의 교훈으로 지도하며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 령

- 1939. 5. 신의주 제 2 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보린원 창립 초대 원장에 취임.
- 1947. 3. 27. 서울 보린원 재건, 초대 원장에 한경직 목사님 취임.
- 1948. 5. 17. 시설 인가를 받음.
- 1949. 7. 기념관 2층 연화조 1동 335명 신축 낙성(미 26 통신대 원조).
- 1957. 10. 1. 보건사회부로부터 재단법인 인가 받음.
- 1958. 8. 남자관 콘크리트 2층 1동(AF-AK 원조) 135명 신축 낙성.
- 1961. 4. 원내에 50드럼들이 물 탱크와 목욕탕 1동 8명 신축.
- 1963. 12. 1. 한경직 목사님 원장 사임. 유의성 원장 2대 원장에 취임.
- 1966. 12. 29. 유의성 원장 복막염으로 별세. 보린장으로 함.
- 1967. 1. 8. 3대 원장에 영락교회 안수집사 임병수 임명.
- 1967. 12. 31. 임병수 원장 사임.
- 1968. 1. 1. 김이섭 집사 4대 원장에 취임.
- 1972. 3. 20. 김이섭 원장 사임.
- 1972. 4. 1. 정우균 장로 5대 원장에 취임.
- 1972. 12. 4. 공동생활 방식을 중단하고 소가족 채택 실시(가족단위).

- 1974. 3. 13. 해임 장학회 창설. 홍완선 권사로부터 부군인 고 이봉익 선생의 명의로 1,000,000원 회사받음.
- 1977. 8. 9. 정우균 장로 개인 사정으로 원장직 사임.
- 1977. 8. 9. 김상익 장로 6대 원장에 취임.
- 1977. 10. 24. 노석주 집사 기술 장학금으로 5,000,000원 회사하심.

3. 지도 이념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 말씀대로 지도 양육하여 완전한 신앙인을 만들며 아울러 학교 교육도 중요시하여 특히 1인 1기의 기술을 연마하게 함으로써 장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 자라게 한다.

4. 아동 및 직원 현황

미취학 아동 : 10명(남 3 여 7)
 국민학생 : 59명(남 37 여 22)
 중 학생 : 30명(남 17 여 13)
 고등학생 : 17명(남 7 여 10)
 기술교육원 : 1명
 원 장 : 김상익 장로
 총무, 회계, 관리, 친모 : 1명
 보 도 : 8명
 성가대 지휘 반주(강사) : 2명

본원에서는 73년부터 소가족(가족단위 형태)을 실시하여 17~18명의 아동들을 한 보모가 담당하고 있는데 5~8명을 수용하는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보모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원의 아동들은 모두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자체내에서 성가대와 합주부를 조직하여 개인 특기를 잘 살리고 있다. 또 국내외로 자매결연을 맺어 매달 생일 축하날에는 각 가정에 가서, 식사도 하는 등 많은 손길이 펼쳐오나 아

직도 부족한 형편이다. 오히려 이들과 일대일의 결연을 맺어 완전한 자립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사랑의 손길이 영락 교인들에게 철저히 요구된다. 영락교회의 아이들인 이들은 지금 책장, 옷장, 사물함 등도 없어, 앞으로 시설면에서도 더욱 확충을 기해야하는 실정이다.

5. 위 치

본원은 용산구 후암동 37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 구조가 여의치 못하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6. 재 정

정부 보조금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의 각 기관에서 후원을 하고 있다. 1977년도 수입 현황을 보면 정부 보조금의 비율이 37%이고 기독교 복리회 재단이 19%이며 후원회가 8% 국내 결연기관이 10%, 기타 5%이다. 영락교회에서는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 영락의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손길이 덜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영락의 아동들을 영락인들이 먼저 보살펴 줄 것이 요망된다.



□ 보린원 기념행사

시설면으로 낙후된 부분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락인의 보살핌이다. 외국인들도 입양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입양은 물론이거니와 영락의 아이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먼저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 이 이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으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참빛을 이 땅에 밝힐 수 있으리라 본다.



생동하는 영락의 젊은이들

청년부 발족

젊은이는 한 가정의 꽃이요, 사회의 희망이요, 교회에선 신앙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젊은 우리 영락의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고들 합니다.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영락교회 전 교우의 3분의 1이 18세에서 35세의 젊은이들입니다. 얼마나 희망에 넘치는 교회입니까? 앞으로의 영락교회가 이들의 어깨에 매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특히 청년들의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평신도부 산하 모든 청년 성서부를 하나로 묶어 청년부를 발족시켰습니다. 둘째로는 청년부(청년협의회 포함)를 전담하여 지도할 전담 지도교역



자를 초빙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이 청년협의회에 참여하게 하여 청년협의회 활동이 대폭 활발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교과과정을 체계화 하였습니다(아래 주일성서부 안내 참조). 다섯째로는 청년 계층에 맞는 교재 편찬에 착수 하였습니다. 여섯째로는 모든 청년을 요원화하여 생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금년 요원화 목표: 500명). 일곱째로는 봉사관 4층을 청년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청년들 활동장소 문제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영락 청년 여러분!

이제 남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동참일 뿐입니다.

영락 청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바램을 영락의 모든 청년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영락 청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영락 청년부 프로그램 및 모임을 소개합니다.

1. 1978년도 사업목표

- ① 청년회원 2,000명 확보
- ② 성경공부회원 1,000명 확보
- ③ 선교교육봉사요원 500명 확보
- ④ 선교기금 1,000만원 확보
- ⑤ 직장 복음화

2. 주요 사업

(1) 주간 사업

① 요일별 성경연구모임

영락의 모든 청년을 단계적으로 선교교육봉사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청년들은 월·화·목·금 중 한 요일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음(봉사관 401호 오후 7시~9시)

② 수요기도회

(봉사관 401호 수요예배 후)

(2) 월간 사업

① 청년 총동원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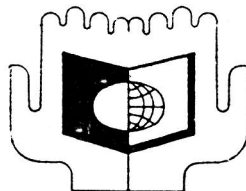
청년 요원 500명을 주축으로 매월 첫주일 오후 1시~3시 까지 총동원 전도 실시

② 지역봉사

매월 셋째 토요일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외된 지역에 전달하기 위한 활동 전개

② 연간사업

청년총등록	1월
청년주일	2월 첫째 주일
식목행사	4월 5일
현행행사	부활주일
청년야외예배	5월 5일
하기수련회	7월 17일~21일
하기선교의료봉사	8월 7일~11일
체육대회	10월 3일
청년전도대회	10월 16일~20일
종교개혁강연회	10월 28일
성탄절행사	12월 21일
요원양성과정	연 2회



영락교회청년부

청년은 꼭 청년등록을!

영락의 7,800명 청년 여러분! 78년도 영락 청년부의 표어는 "청년아! 일어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 사업에 동참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우리 영락교회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같이 활동을 못 하시는 것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청년 총등록의 달로 정하고, 영락교회에 나오시는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들의 등록을 받습니다.

현대와 같이 다원화되고 분업화된 사회속에서 기독교청년들의 만남의 기회는 드물고 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동하는 기독교청년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등록 안내처를 봉사관 라비에 설치하여 놓고 청년활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주일성서부 및 요회모임 ☞

각부	청년부				
분류	성서1부	성서2부	성서3부	성서4부	영성부 요회모임
지도 및 감사	지도: 김 부				
	홍석봉	조병현	도종우	나낙진	Al Tisdale 김부
부장	부장: 홍형균 협동부장: 오만순				
부장	임정산	김계호	김창관	이백규	최정훈
권사	박해지	현윤경	정태숙	원정준	김정숙
장소	기년관 4층	봉사관 402호	봉사관 405호	기년관 4층	봉사관 401호 401호
시간	오전 11:20~12:50	오전 11:30~12:50	오전 11:30~12:50	오전 8:45~10:00	오전 9:00~10:00 오후 7:00~9:00
대상	18~35세	18~35세	18~35세	18~35세	영성성서 18~35세
	원일교인	학술교인	세례교인	참석자	회당자 모든청년



○... 본 주간성서 연구는 평신도부에서 제작하여 나누어 드린 매일 성서 읽기표에 따라서 각 구...○
○...역, 반별로 또는 개인적으로 성서연구를 하실 수 있는 길잡이로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와 병행하여 공부하실 수 있는 성경통신학교 문제를 각 구역장이나 평신도부 사무실에...○
○...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힘쓰십시오.○

제 47 과 거룩한 절기들

(1월 22일 - 1월 27일)

성경/레23:1-25:55 찬송/250장

요절/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와 절기는
이러하니라 (레 23:26).

기도/당신의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서 론〉

전 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서 특별히 해야 할 두가지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본 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이 특별히 지켜야 할 몇 가지 절기들을 지정해 주셨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기들의 행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더욱 확고하게함과 아울러 그들의 선조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배우고,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본 론〉

안식일

이 날은 가장 으뜸되는 절기로서 매주 7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끝내신 후에 안식하신 날이다.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안식의 상징이기도 하다.

유월절

1월 14일에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다. 이 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은 날이다. 이 날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날이다.

오순절

3월 6일에 지키는 절기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다.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행 2장).

속죄일

이 날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의식의 날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날이다.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날의 상징이기도 하다.

회 년

매주 일곱번째 날이 안식일, 매 일곱번째 해가 안식년, 매 마흔아홉번째 해가 회년이다. 이 날은 종들이 해방되고 빚진자가 탕감되고, 추방된 자들이 돌아오는 날이며,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되찾는 날이다. 이 날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하다.

〈결 론〉

이상으로 열거한 모든 절기들도 역시 그것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와같은 절기들을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화해단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토의문제〉

1. 이상의 다섯가지 절기 외에 다른 절기들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라.
2. 유월절의 참된 뜻에 대해 자세히 토의해 보라.

제 48 과 내 증인이 되라 !

(1월 29일 - 2월 4일)

성경/행 1:1-11 찬송/183장

요절/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기도/참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서 론〉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가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과 40여 일을 함께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다. 그 분부는 "그의 증인이 되라"는 부탁의 말씀이다. 증인이 되어야 하되 유대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명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본 론〉

1. 증인의 자격

먼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겠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진실된 증인이 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 말할 수 없다

(고전 12:3).

2. 증인됨의 의미

① '증인' 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사람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한 사실을 거짓없이 진실되게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확신있게 증거해야 한다.

② 증인이란 말의 뜻은 순교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 스메란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했다.

〈결 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할 장소는 법정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삶의 현장이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증인으로서의 진실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토의문제〉

1. 오늘날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론 주간성서연구는 오늘날처럼 이단 사설이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영락의 교우들에게 좌...○
○...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며 매일매일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락의 권속들은 스스로 섰다 하는...○
○...오만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더욱 공부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됩시다○

주간
성서연구

제 49 과 초대교회의 특징

(2월 5일 - 2월 11일)

성경/행 2:37-47 찬송/201장

요절/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2절).
기도/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 론》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 교회의 증가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의 급증가는 교회 본래의 진실된 모습을 점점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신약성서 사도행전에서 찾아보아야 하겠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과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본 론》

사도행전 2장37-47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몇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1.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42절).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 성서를 공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초대교회는 말씀위에 기초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는 그 기반이 곧 무너지거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2.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42절).

교회의 기초는 첫째는 말씀이요 두번째는 기도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죽은 교회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을 정상적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교회는 기도를 쉬지않는 교회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3. 서로 성도의 교제를 기짐(42절).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성도간의 진실된 사랑의 사귄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없다. 초대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 교회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떡을 떼며 성도간의 사랑의 친교를 나누었다.

4.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힘쓰(41절).

교회의 대외적인 사명중 가장 귀중한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아무리 열심히 친교하고, 기도하고, 성서를 연구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없으면 교회가 그 시대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이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사도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삼천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결 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갖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일이다.

《토의문제》

1. 초대교회가 생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2.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 50 과 생동하는 그리스도인

(2월 12일~2월 18일)

성경/행 8:1-40 찬송/175장

요절/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1)
기도/생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서 론》

초대교회 집사 스테반이 죽임을 당한 후에 초대교회에는 큰 핍박이 가해졌다. 이와 같은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교인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와 같은 큰 핍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지 못했다. 스테반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이방인들 땅에 깊이 심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가해질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활약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일꾼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용감하게 순교한 스테반 집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는 빌립 집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본 론》

그러면 빌립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빌립을 통해 많은 귀한 사실들을 본받을 수 있다.

첫째, 빌립은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고, 정식으로 안수받은 교회 목사도 아니었다. 그는 집사로서, 교회에 성실히 봉사한 평신도였다.

둘째, 빌립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셋째, 빌립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이었다(8:26).

넷째, 빌립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8:26-27).

다섯째,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8:35).

여섯째,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에 의해 완전히 인도된 사람이었다. 이것은 영적승리의 삶에 최상의 조건이다(6:3-8).

《결 론》

초대교회와 같이 생동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 주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생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미 믿은 우리들은 어떤 질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들이다.

《토의문제》

1. 초대교회가 생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2. 우리는 어떤 내면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란 누구이신가 (3)

임마누엘 (Emmanuel) 사건은

첫째로 영원과 시간의 상봉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시간은 가치가 생기고 의아를 지니게 되었다.

둘째로 임마누엘사건은 하나님의 역사(役事)와 뜻이 구체적으로 이 역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宗教)라도 역사(歷史)와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의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별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역사(歷史) 안에서 사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그리스도의 사건(事件)이 역사적(歷史的)인 사건(事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세째로 임마누엘 (Emmanuel) 사건은 전 (全) 인류 (人類)에게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 (意味) 한다.

지상 어느 구석에서 우리가 향구적인
 소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 10년 가는 권
 세가 없다고 하듯이 5년 이상 계속되는
 소망을 한국 땅에서 얻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
 한신 사건 즉 임마누엘사건은 그와 같은
 소망을 넘어서 우리에게 향구적인 소망을

가르쳐 준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다 왜냐하면 그의 공로가 우리들의 죄를 다 없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생(永生)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성육신(成肉身)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真理)와 권능과 자비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계기가 된 것이다.

Ⅲ. 그리스도의 두 본성 (本性)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시게 되었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이 상대적인 인간의 모습을 덧입고 나타 나셨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람의 이해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던져 주었다. 어떻게 하나님인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성(神性)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인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되어 신학자(神學者)들 사이에는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유감스럽게도 성서(聖書)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명백한 설명을 하지않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에우라는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음 호를 기다려보기로 한다.

見雪雀躍 舜息間이오
日暖初雪 雲散無라
虛無虛無 如水泡하니
何慶耶在 我耶望이라
故無關心 此姿婆하니
一切喜悲 捨彼岸하고
精進精進 主信仰하세
一路精進 主信仰하세

순길도 보고 좋은 함도
눈을 뜨고 일기야 함도
파스한 날 첫술이이라
사라진 흔적도 없네
허무하디 또 허무하오니
물거품 같음이여
우리들의 그 사랑은
외리할 곳 아데인고

그런고로 더없는 세상에
애착일량 두지 말고
기쁨과 슬픔임이고
저 언덕에 버려두고
나가세 나가세 주님 믿는
신앙의 길로
나갈도 나가세 주님 믿는
신앙의 길로

瑞雪紛紛 喜滿坤하니
梨花裸木 爭先開과
非時逢春 望裸木하니
回春之心 自然來라

상서로운 첫눈이
기쁨이 땅위에 가득히 찼네
호날리는 데
배꽃이 한참인데
왜 떨어진 나무에는
때 아닌 봄을 맞은
裸木을 바라보니
회춘의 소망이
저절로 솟아오네

배운형집사

丁巳初雪有感

意譯文

◎ 영락교회의 신앙지도 원칙 ◎

1. 복음주의 신앙노선 (성경 중심)
2. 경건한 생활의 연습 (절제, 근엄한 청교도적 생활윤리)
3. 교회 연합운동에 협력 (에큐메니칼 정신)
4. 사회정의의 구현 (교회의 사회적 양심의 사명)

■이 달의 독서 안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생활의 비결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사탄을 물리는 것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전이다.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확실한 생이 의기와 소망과 기쁨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피로하고 슬프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일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진정 행 복해질 수 있을까?

이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저자 한나 위탈 스미스는 그의 깊은 신앙체험에서 얻어진 값진 체험을 토대로 한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믿음이란 막연한 상상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추측의 세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바로 현실적이며 현실을 아름답고 행복스럽게 축복의 세계로 끌어다 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승리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꼭 한 번 전도를 해보아야 될 귀중한 책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 300만부 이상 팔린 우리 시대의 신앙의 결정판으로서 읽는 독자에게 희망과 이상을, 사랑과 축복을 더해줄 안내서이다.

초대교회 연구

-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초대 교회 같.....○
-이 생동하는 교회가 되자"이다. 이 목표에.....○
-맞추어 본 란에 초대교회에 대한 연구란.....○
-을 앞으로 몇회 계속하여 실리기로 했다.○

1. 교회의 사명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至上命領)이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초대교회 형성의 기초가 된 말씀이다.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 : 19)고 더욱 강조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분명한 지식으로 환원하여 발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다. 회생이 뒤따른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 일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자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회생도 불사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아 죽기까지 했다.

증인이 되는 일은 충실한 일꾼됨에서 가능하게 되고, 일꾼됨은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가능해진다.(마태 16 : 13-15). 그리고 주님과 만남의 기회(기도)를 통해서 더욱 그렇

게 될 수 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가정에서부터 증인됨의 행위를(전도)시작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한 정신병자 청년을 고쳐 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가정은 기독교인이 되게하는 가장 좋은 훈련장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본질적인 자기 표현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이나.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타심과 친절과 용서와 신뢰깊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 : 8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책임과 원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증인됨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생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원칙을 심으며, 일을 할 때 확실성을 가지고 일한다면 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눈에 들게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사마리아와 같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다.

2. 초대교회의 특성

사도행전 2장 41~47절은 초대교회의 모든 특성을 요약해 놓은 성경이다. 여기에 나타난 특성을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우는 교회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다. 당시에 는 교회의 건물도 없었으며 조직화된 교회도 없었다. 설교는 노천이나 도시의 광장 혹은 거리에서 행해졌고 특별한 날에는 어느 교인의 방을 빌려 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저들은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참다운 교회란 언제나 배우는 교회이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배우는 성도이다.

유명한 언론인 콜리 녹스(Collie Knox)씨는 "당신은 몇 살에 교육이 끝났습니까?"란 질문에 답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유명한 화가 코로트(Corot)가 나이 7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앞으로 10년을 더 살게 해 주신다면 나는 그림 그리기를 더 배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많은 성도들이 배우기를 꺼려한다. 예배에만 치중하고 일반 성경공부에는 소홀하다. 이것은 직분말은 사람일수록 더하다. 그러나 배움이 없는 곳에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일 아무것도 새 것을 배우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헛되이 낭비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공부해야 된다.

박 조준 목사 지음

공관복음강해

全2卷



“이 책은 주석서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때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할 수 있다면 저로서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머리말에서-

국판 고급양장 400면

값 각권 2,000원

◎전국 기독교 유명서점 판매중◎

감 사 한 일

영락 보린원

성서 학개부 : 사탕주머니 150개, 학용품, 과자, 사탕, 비누, 성경, 식탁 2 군

서대문 42·43구역(구역장 유재호 장로): 떡 4 말, 사과 1 짹, 식탁 1 군

교회여장년 3 부(생일축하): 떡 8 말, 쇠고기 15근, 사과 3 짹, 꿀 1 짹, 티나 2 상자

이성운 집사 : 싱크대 1

김연복 집사 : 식탁 1 군

김제호 집사 : 식탁 1

김정숙 선생 : 식탁 1

문성은 장로 : 식탁 1

정인철 장로 : 식탁 1, 꿀 2 상자

오재도 집사 : 의자 4 개

경로대학 학생일동 : 식탁 2 조, 의자 2

이화여대 로타랙트 클럽 : 양말 67 켤레, 색종이, 사탕, 과자, 빵

5 공수 22 특전대대 : 거울 2, 사과, 꿀, 과자, 운동구

홍형균 집사 : 싱크대 1

백금옥 권사 : 식탁 1

고진근 집사 : 의자 2

김근주 집사 : 싱크대 1

김시환 장로 : 의자 4

장봉근 집사 : 의자 4

이성식 집사 : 의자 4

최명옥 권사 : 식탁 1

임정산 집사 : 싱크대 1

최창근 장로 : 식탁 1, 의자 8

윤춘균 권사 : 식탁 1

한석순 권사 : 식탁 1, 꿀 2 상자

한경직 목사 : 꿀 2 상자

한원섭 집사 : 고소미 1 상자, 종합선물 6 박

김영도 권사 : 쇠고기 10근(식탁 2 조)

한일병원(기획조사과, 간호과) : 꿀 4 상자, 책, 현금 10,000

최성보·이연순·소윤진·관순필·이은숙 : 식탁 1 조

차연선 권사 : 식탁 1 조

오만순 장로 : 식탁 1 짹(식탁 3 개, 의자 18 개)

김병작 장로 : 기술장학금 100,000

영락 모자원

김득일 50,000

무명씨(의료비) 100,000

김영도 권사 50,000

김시환 장로 20,000

김정희 권사 100,000

최현철 집사 30,000

안영금 집사 5,000

고상우 집사 100,000

박충옥 장로 50,000

문성은 장로 100,000

김덕윤 집사 50,000

김성우 권사 25,000

김찬빈 권찬님 추도기념 100,000

당 회 실

김 영 세 집사 당회실 커튼 일체 기증 (30만원 상당)

청 년 부

홍 형 균 장로 청년부에 앰프 및 마이크 일체 기증 (10만원 상당)

교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상례부장 문 성 은

1978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교우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도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역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365구역에 담당하신 구역장 권사 권찬님들과 전체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별고없이 상례부사업을

끝내게 된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교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어느때 보다도 상례를 위하여 각구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심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선교, 봉사, 친교등 많은 성과를 초래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이를 잘 실천하여서 모범구역으로 십여구역이 선정된바 있아오나 78년도에는 459구역이 모두 모범구역이 되기를

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경말씀가운데

“초상집에 가는것이 잔치집에 가는것보다 나으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한해의 지혜자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아울러 78년도에도 작년과 변함없이 상례부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별세자 연령별 통계표

별세자수	성 별		1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 - 60	61 - 70	71 - 80	81 - 90
	남	여									
167	90	77	3	0	9	6	16	24	38	43	28

별세자 월별 통계표

별세자수	성 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남	여												
167	90	77	23	5	14	15	16	12	8	13	16	11	15	19

별세자 구역별 통계표

별세자수	성 별		제 1 동산	제 3 동산	화 장	사설묘(기타)	이 장		계
	남	여					남	여	
167	90	77	8	133	5	21	11	5	16

별세자 묘지별 통계표

별세자수	성 별		성동구	강남구	중 구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	동대문	종 로
	남	여										
167	90	77	10	29	8	9	14	7	5	18	13	11
			성북구 19	도봉구 8	시 외 5							

1 월 새교우 명단

새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새 교우 환영모임이 매월 첫째 주일 저녁 예배후 선교관 하층에서 있음—

이성순	성동구 용담동 111-1	김중도	영등포구 본동 457~123	최경훈	서대문구 신사동 200~96
김태열	성동구 구의동 126-26	한원진	강서구 화곡동 366~62	김옥순	서대문구 용암동 5가 537~55
고제학	성동구 용봉동 8	김길자	강서구 화곡동 366~62	홍순주	서대문구 홍제동 330~281
김현석	성동구 행당3동 아파트 2동 18호	이경란	강서구 방화동	임신자	서대문구 홍제동 266~153
윤재용	강남구 잠실 1단지 33동 407호	임순계	용산구 보광동 42	박관석	서대문구 대현동 21~1
허은웅	성동구 성수동 1가 657-966	황병익	용산구 효창동 5~508	박영수	서대문구 홍제 4동 197~14
김신자	강남구 잠실 2동 274-306	김용선	용산구 청파동 3가 10~34	김성용	서대문구 구산동 9~15
김영혜	강남구 잠실 3동 주공아파트365	정윤재	영등포구 가리봉동 255~28	주은숙	서대문구 용암동 94~28
김태준	강남구 서초동 극동아파트 23-508	김덕숙	용산구 한강로 3가 63~206	이영희	서대문구 창천동 317
정재순	성동구 구의동 242-92	원윤재	용산구 한강로 3가 63~206	김종열	서대문구 불광동 445~125
원남규	성동구 중곡동 253-2	신범섭	용산구 원효로 4가 신천 아파 트 1동 408호	강경주	서대문구 불광동 105~25
강봉익	성동구 금호동 1가 742	이경숙	영등포구 가리봉동 138	차재현	서대문구 연희동 112~7
김혜연	성동구 금호동 1가 742	조순아	영등포구 당산동 2가 11~1	강희정	동대문구 민목 4동 13:1~9
권동진	동 주택공사 잠실 3동 사무소	한영숙	강남 아파트 12동 407호	김금복	동대문구 진흥 3동 3
이성민	성동구 구의동 204번지	홍인균	영등포구 구로 3동 139~1	정계순	동대문구 화경동 175~1
김남수	성동구 금호동 3가 1550-1	문현운	용산구 한남동 726~74	권상욱	동대문구 신설동 103~1
김광수	성동구 중곡동 257-16	박경희	용산구 증빙고동 1~100	김승호	동대문구 상봉동 100~27
이홍란	강남구 잠실 1단지 62-204	유석균	용산구 증빙고동 1~100	윤효자	종로구 신영동 135~1
이영식	강남구 서초동 77부록 2호	박선영	용산구 보광동 78~4	주 용	종로구 외봉동 1~226
김관섭	성동구 군자동 143-11	황선준	용산구 동자동 35~47	정경원	동대문구 상봉동 128~41
이 운	강남구 잠실 3동 주공 아파트	황규철	용산구 동자동 35~47	최선욱	동대문구 제기 3동 137
김명자	503동 3층 310호	주문순	영등포구 영등포 2동 94~128	윤기섭	동대문구 망우동 341~8
추춘암	강남구 도동 271	김경선	용산구 보광동 3~90	최상숙	종로구 종로 2가 53~53
주용숙	강남구 잠실 1동 주공아파트 57	이옥선	영등포구 시흥 2동 산91	김화숙	종로구 명륜동 4가 18
한문실	-307	이광래	용산구 후암동 412~8	김영미	종로구 동숭동 시범 아파트 416
김태영	강남구 잠실 1동 주공아파트122	이은자	영등포구 신길동 135	이은복	성북구 정릉 3동 721~3
이환순	-504	이혜영	용산구 이촌 2동 199~38 남부 아파트 208	최용운	성북구 석관동 332~168
임정미	중구 회현동 2가 55	김중훈	용산구 도원동 4	황임주	도봉구 번 2동 433~20
유재성	중구 남산동 2가 48	강영희	부천시 범박동 산37	노창현	성북구 삼선 4가 73
박정예	중구 입정동 254	신희경	안양시 안양 6동 539~1	이용안	도봉구 번동 148~164
이종만	중구 송파로 4가 15-7	신희만	마포구 신수동 380~7	한원자	성북구 안암동 2가 96
김태영	중구 송파로 4가 15-7	김숙희	관악구 봉천 7동 164~6	이명숙	성북구 정릉동 721~3
오경희	중구 필동 2가 134	이양숙	관악구 봉천 7동 220~3	김말자	성북구 정릉동 721~3 모자원
이명화	중구 필동 3가 27	장인주	관악구 봉천 7동 220~3	박금자	성북구 정릉동 721~3 모자원
김아울	중구 을지로 2가 134-3	최재열	관악구 봉천 7동 220~3	홍현자	도봉구 수유 2동 540~59
신호성	중구 신당 8동 271	하창조	관악구 봉천 7동 220~3	김옥진	도봉구 수유 2동 540~59
하석렬	중구 신당 8동 271	최희숙	관악구 봉천 7동 220~3	박홍서	도봉구 수유 2동 540~59
이은경	중구 회현동 2가 61	김상하	관악구 봉천 7동 220~3	이영순	성북구 정릉 3동 721
천형달	중구 회현동 2가 61	김정란	관악구 봉천 7동 220~3	장찬규	성북구 하월곡동 4동 산 2-12
양석순	중구 필동 3가 49-3	정춘호	관악구 상도동 134~24	이동재	성북구 돈암 1동 39~8
김종근	중구 청계천 세운아파트 4층	안희중	관악구 동작동 반포 아파트 87동 403호	최명자	도봉구 수유 1동 391~163
홍진희	영등포구 신도림동 741-2	윤경자	관악구 동작동 반포 아파트 87동 403호	정순애	성북구 성북 2동 217~65
이향숙	영등포구 신도림동 741-2	김숙명	관악구 동작동 반포 아파트 98동 211호	주양숙	도봉구 창동 733
황규환	영등포구 신길동			이혜중	도봉구 수유 4동 280~12
박찬원	용산구 갈현동 7~180			박명순	도봉구 번동 148~264
안정식	용산구 이촌 1동 301~102 공무 원아파트 2동 303호			신순호	성북구 삼선동 5가
이현일	강서구 목동 17~9			잠고의	도봉구 창 2동 582~11
황은혜	영등포구 신도림동 396~81			이봉재	도봉구 월계동 270~5
노형숙	강서구 가양동 51~3			배정숙	도봉구 월계동 270~5
송말덕	영등포구 여의도 637 백조아파 트 A동 801호			홍영숙	동대문구 상봉동 130~135

□ 2월 중요행사 □

- 1월 24일-권찰 강좌
30일-정기 당회
- 2월 5일-청년주일(저녁청년헌
신예배)
- 6일-정기제직회
7일-사순절시작
9일-영락 중학교 졸업식
12일-남녀 전도회
19일-심방 준비회(성서 학
원 졸업식)
- 24일-영락여자 신학교 졸
업식
26일-봉사 주일
27일-정기총회

교역자 동정

한 학수 목사 부임

장로회 신학대학을 거쳐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연회동 교회에서 시무하셨다.

윤 두혁 목사 부임

계명대학을 거쳐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총회 교육부 커리큘럼 위원직을 맡고 계시다. 또한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시인이기도하다.

한 정원 목사 부임

동국대학을 거쳐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동승 교회 부목사와 청신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다.

송 석홍 전도사 심방부에 부임

청주대학을 거쳐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셨다.

박 은성 전도사 심방부에 부임

송전대학을 거쳐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셨다.

장 재원 전도사 심방부에 부임

송전대학을 거쳐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셨다.

임 형식 전도사 초등부에 부임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 재학 중이시다

신 기창 전도사 유년부에 부임

연세대 신과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신 후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 재학중이시다.



한 학수 목사



윤 두혁 목사



한 정원 목사



송 석홍 전도사



박 은성 전도사



장 재원 전도사



임 형식 전도사



신 기창 전도사

* 장로장립 집사안수 *

지난 12월 22일 오후 1시에 영락의 새 기둥이 될 장로 장립 및 취임식과 집사 안수식이 있었다.

장립: 공 군 김득일 김연호
유재호 이규근 이창건
장근수 조남욱 홍형균

취임: 박충욱

집사안수: 고상우 고진근 김성배
김연진 김영하 이백규
최선죽 최찬훈 허근
(가나다순)

孔源 장로 공로장로로 추대

1907년 1월 19일 평북 용천에서 출생하여 어머니의 품에서 두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믿음의 사람이셨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삶을 교육사업에 바치며 평북 의주 신성학교에서 15년간 계속하여 교육에 힘쓰셨다.

월남후 본 교회 증경장로였으나 1958년 12월에 시무장로로 취임하시며 교회 각부 부장을 역임하셨고 각기관에서 특

서울노회 재정부장, 교육부장, 총회재정부장, 누차 역임. 또한 서울노회 유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면서 교계에 공헌한바 그 공적이 크시다. 장로님은 1936년 10월에 평북 용천노회 용유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40여년간을 장로로 충성하셨다.



김득일 장로



김연호 장로



유재호 장로



이규근 장로



이창건 장로



장근수 장로



조남욱 장로



홍명균 장로



박중욱 장로



고상우 집사



고진근 집사



김성배 집사



김연진 집사



김영하 집사



이택규 집사



최선죽 집사



최찬훈 집사



허근 집사



공원 장로